

창세기 읽기 오늘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 장입니다. 속도가 늦죠 1장과 2장은 세계 창조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3장은 아담과 하와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3장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락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
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형제죠. 형제 살해를 창세
기 기자가 이 앞 대목에 배치했다는 것은 인간 사회가 그런 정도로 폭력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
겠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소설의 모티브로도 많이 나옵니다. 어느 소설인지 정확하게 짚을 순 없는데
(존 스타인 벅의 '에덴의 동쪽-녹취자주) 서양문화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초창기 소설에도 나와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 '라는 이야기인데 반드시 형과 동생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존속살해를 가
리키죠

이러한 일들이 동물 세계에서는 흔하진 않습니다. 물론 더 끔찍한 이야기도 동물 세계에는 있긴 있
어요 여러 명 여러 자식들을 뒀는데 경쟁력이 없는 녀석을 아예 도태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
도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생존 내에 관계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존속살해는 동물세계에도 흔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들은 건 있습니다. 그 숫 사자 뭐 숫 어떤
녀석이 새로운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암놈이 키우던 새끼들을 죽인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끔찍한 거죠. 인간세계에는 있지 말아야 될 존속살해가 이렇게 창세기 4장 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저 열매를 먹으면 주어지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이해하기
가 어려워요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동침한다는 단어의 각주가 2번으
로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알게 됨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알게 됨에' 라고 하는 단어가 성관
계를 가리키는가 보지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동침 함에 는 그 성관계를 분명하게 가리키
는데 각주로 나온 알게 됨에 이거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같은 뜻이에
요. 고대인들이 어떤 단어를 쓸 때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서 안다 하고 우리의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사실은 성관계를 가리킨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애기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동침하기 전에 낳은 거예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방식의 아기 낳기로 아기를 낳는 겁니다.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주
건조한 표현이긴 한데 대단한 사건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낳는다는 게 인간이 이 땅에 존속
하는 데 핵심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사회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기는 하는데 그게 인류가 존속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선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의 먹고 마시고 번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겁니다. 왜 거룩한 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창세기 앞장 읽으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창조의 원리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이상하게 들리게 됩니다. 창조의 원리, 원리 강론이라는 통일교의
책도 있잖아요 성경은 원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만 거기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
니까 문제가 돼요 책의 행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원리라고 할 순 없어요 원리 강
론은 별거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원리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모두 짝이 있다

고 말이죠. 신약과 구약에 있는 것들을 딱딱 들어맞게 짝을 맞춰서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장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짝지움이나 원리 이런 걸로 접하는 건 대하는 건 이걸 잘못입니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거룩하다고 하는 건 전달이 되죠. 우리가 먹는 것도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이렇게 뜯구름 잡는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 사건은 다 거룩한 겁니다. 밥 한 그릇도 거룩하게 먹을 수 있고요 진수성찬도 초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시편 같은 데는 종종 더 나오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혀 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아 그렇게 좀 그러려니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세계를 꿰뚫어 보는 데서 나오는 시적 표현입니다. 영혼이 그 천둥 번개에 앞에서 지축이 흔들리는 거 같은 경험을 한 데서 나온 표현인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상투스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삼성 창이라고 합니다. 세 번 3성 거룩한 창 노래 중세기 때는 그런 삼성창이 많이 보여졌고요 지금도 가톨릭이나 동방전교회 그리고 성공회 이런데서 많이 합니다.

현재 다샘교회와 샘터교회의 예배에도 거룩송이 나옵니다. 그게 삼성창인거예요 그 거룩한 시각으로 세계를 볼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건인 그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또 남녀 관계 인간 관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속해 있는 거라서 거룩한데 그걸 거래 상거래처럼 여긴다거나 오늘 세대가 그렇습니다. 상거래처럼 여긴다거나 아니면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일절로 말이 길었습니다. 말이 긴 건 아니죠. 여기에 관계된 일들이 있던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아기 출산 그리고 키우는 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라고 하는 저 건조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는 책 한 권에서도 부족할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이어지겠죠.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더 발전해서 임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기를 출산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죠. 난자와 정자를 집어서 인공 시험관에 결합하여 배아를 만든 다음 이것을 인공 자궁에 넣어서 키우는 거죠. 그러면 뭐 임신할 필요 없는 거죠. 이런 때가 오면 여자분들이 해방된 걸까요 임신의 수고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인생이 멋질 까요 모르겠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게 그러한 수고로움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세탁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 해방에서 가장 크게 공헌한 과학 발명품이 세탁기라면서요?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해방됨으로 말하면 빨래를 이제 이렇게 제가 손으로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므로 빨래의 즐거움을 놓치는 겁니다. 빨래의 즐거움 얘기하면 또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뭐를 만든다는 거 제작한다는 거 흠을 만진다는 거 설거지 한다는 거 빨래 하는 거 이게 다 거룩한 일입니다.

요즘 제가 텃밭 일을 시작했거든요 어제도 여러 시간 텃밭에 가서 흠을 고르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장갑은 끼죠. 마음 같아서는 장갑도 안 끼면 더 좋긴 하겠는데 장갑을 끼니다. 흠 만지고 지금 이제 촉촉합니다. 얼었던 땅이 이제 녹아서 봄 흠은 촉촉합니다. 거기에는 돌 골라내고 지푸라기도 골라내고 곱게 만들어 주는 작업이죠. 거름도 주고 뭐 해야 됩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말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 달 동안 생명을 몸으로 키워내는 임신 과정에서 여성들을 해방시킨다면 행복할까요 미래는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남녀 결합도 할 필요도 없이 성관계도 없이 그 성체 세포 그거다 세포로 돼 있잖아요 성세포 안에 저의 뭐 유전 유전자가 이제 다 들어가겠습니다. 세포 하나 떼어서 그걸 인제 가공하여 후손을 만드는 날도 올 거예요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분리 물리(복제양) 영국에서 그 작업을 무슨 오래 전에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를 반복하고 있을지 몰라요 한창 20세기 초반인가 21세기 초 조금 넘어 와서 인가 10년 되기 전에 그때 한참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동물실험을 했거든요 성체 세포로 복제양을 만들었는데 여러가지 질병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자연과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신도 하지 않는 세계 로 나갈게 거의 분명해 보여요 뭐 크게 몇 10년 안에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몇 100년 뭐 몇 1000년 뒤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말하다가 보면 생각이 옆으로 많이 퍼집니다. 챗gtp 뭐 이런 방식의 생성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과 아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돼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될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끝나고 다른 인공지능과 실제 인공지능과 로봇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결합된 세계가 나올지도 몰라요 뭐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디스토피아죠. 디스토피아 아직 파멸적 세계인데 그쪽으로 가긴 갈 겁니다. 편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낳았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우라는 표현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자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둘째 아벨을 낳았다 하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둘째 아들 아벨이 나왔다 하와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 해도 되는데 가인의 아우를 강조합니다.

이 두 관계가 4장의 주제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산수처럼 뭐라고 해야 하나 산술 계산으로 본다면 가인과 아벨이 인류의 세번째 네번째 조상이 되는 거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4 명이 있는 걸로 생각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왜 그런 지가 나올 겁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유목민의 조상이 됐네요 아벨은. 가인의 농경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직업이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가지 일이 유목민과 농경민 유목과 농경 이 두 가지가 고대인들에게는 삶의 모든 거였습니다. 이게 인간 삶의 바탕인 거예요 가끔은 저런 영역이 줄어 들긴 하지만 저걸 하는 사람들의 소수죠. 옛날엔 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피에는 저 두 가지가 흐른다는 겁니다. 하루 뭐 몇 년 하고 말고 아니라 수십 수만 년 동안 저렇게 살았습니다. 유목민과 농경인 그 피가 흘러요

우리도 저런 일을 할 때 정말 인간다워지는 거죠. 짐승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 갖곤 안 되잖아요 손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몸을 쓰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입니다. 편하긴 하겠지만 인간의 본질을 놓치는 거죠.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다시 우리가 전문적인 유목민이나 농경인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근데 디지털의 방식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 하는 겁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당연하죠. 놀랍습니다. “땅의 소산” 요 문장도 이제 드라이하잖아요 드라이한 문장에서 깊이를 찾아내는 글 읽기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책들은 다 드라이합니다. 재미없다는 뜻으로 드라이가 아니라 어떤 사태의 근본을 짚는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도 굉장히 드라이해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 지나고 예 다섯째 주일이 다가옵니다. 4월 2일이 여섯째 주일이면서 종료 주

일이고요 4월 9일이 부활 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관한 복음서의 묘사는 건조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 그리고 그 속에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뭐 등등 감정적인 묘사는 일절 생략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수사들을 다 빼내고 건조한 문장을 통해서 정곡을 찌는 글이 좋은 글이죠. 보통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소설가들이 다 그렇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흘렸을까요 가인도 많이 자랐겠죠. 가인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땅의 소산 땅에서 뭔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저런 쪽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좀 돌려도 우리의 삶이 크게 가벼워 질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돈이 많아야 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 없이도 얼마든지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영혼이 이렇게 공명이 된대거나 흥미로워지지 못 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목을 매고 있어요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식 문제도 있고 다 또 일상은 열심히 꾸려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주어졌으니까 기쁨 충만하게 살면서 나머지 일들 일상은 헤쳐 나가면 됩니다. 그 일상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현대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 제가 설교 때도 종종 얘기했습니다만 학교 교육이나 가정교육과 시스템 체제 신자유주의지이라고 하니 이데올로기 등등이 우리를 일상에 과도할 정도로 몰입하게 만듭니다. 저거 저기에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조바심을 느끼게 합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잘한 거죠. 칭찬받아야 됩니다. 가인 잘한 거예요 저 때까지 “아벨은 자기들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에 요것도 건조한 문장인데 아벨이 양과 맨날 며칠 밤을 지새웠으며 양을 품에 안고 밤에 자면서 숫자가 내려 오기를 막아 주고 밤하늘의 별들을 봤겠죠.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전부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까지가 이제 문제가 벌어진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제사도 받아 주셔서 문제가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카인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지 못 않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소산에서 대충 아무거나 골 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이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엉뚱한 거죠. 저렇게 성서가 그런 얘기에 일언반구도 없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기는 해야 됩니다. 행간에 어떤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드라이하게 표현된 것도 좀 살아 움직이게 정물화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으로 단색이 아니라 채색된 것으로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끌어 들어서 읽으면 좀 곤란한 거요.

가인이 하나님께 정성스럽지 않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부분까지는 가인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벨도 최선은 물론 다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것도 분명 합니다. 둘다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집 삼아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고 이야기하고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문제가 벌어지지 않은 거지 그리고 뱀을 그렇게 유혹자로 활동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지 그렇게 볼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최선을 다 했는데 가인은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입니다. 일들이 있어요 다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인생이 막 엉망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충 살았는데도 또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누구 잘못이야 따지기 시작하면 이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이죠.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요 단락부터 보겠습니다.